



무주군 마을로 가는 축제 교육을 수료한 19개 마을 관계자 50여 명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리 힘으로 우리마을 키워요

무주군, 마을로 가는 축제 실용화교육 실시

무주군은 지난 24일 전통공예문화촌 다목적 영상실에서 2016 마을로 가는 축제(여름, 가을, 겨울) 체험 프로그램 실용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마을의 기획력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마을로 가는 축제 교육을 수료한 19개 마을 관계자 50여 명이 함께했다.

하성용 무주부군수는 이 자리에서 "무주군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강의 했으며 군 마을만들기사업소 김기우 소장은 "마을로 가는 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이어 마련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봄 축제 실시 결과를 토대로 마을에

서 준비한 내용과 실전에서 발생한 개선점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나눴으며, 마을별로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또 마을로 가는 여름축제(여름방학 & 휴가 기간7월22일~8월15일)와 초가을축제(반딧불축제 기간 8월27일~9월4일), 초겨울축제(농·특산물축제 기간 10월29일~11월13일) 날짜를 확정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적용, 실용계획 수립 과정을 거치며 체험거리 발굴과 체계화, 매뉴얼화에 집중하기로 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황정수 군수는 "우리는 마을로 가는 축제를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눈에 보이는 결실들이 나오기 시

작하며 더 큰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다"며 "마을로 가는 축제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까지 연계해 무주의 진가를 전국방방곡곡, 나아가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단 기간에 완성이 될 수 없는 것인만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 주민들이 함께 차근차근 완성해 가보자"고 덧붙였다.

무주군 마을로 가는 축제는 지난해 8월 반딧불축제와 연계해 처음 시작(11개 마을 참여, 9월 간 3,560명 참가)이 됐으며 올해부터는 연중축제로 확대해 봄 축제 기간 동안(10개 마을 참여) 1만 2천 6백여 명이 찾아와 1억 3천여 만 원의 소득을 올렸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운일암반일암' 오늘부터 개장

피서객 맞이 근무자 안전교육·쓰레기 3NO운동 등 펼쳐

천혜의 기암절벽과 맑은 물을 자랑하는 국민관광지 운일암반일암이 피서객 맞이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27일 개장한다.

진안군 주천면(면장 배완기) 운장산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운일암반일암은 급경사의 발원지인 금남정맥의 지붕이라 불리는 1.126km의 운장산 자락에서 솟구치는 맑고 시원한 병천수가 휘감아 흐르며 곳곳에 크고 작은 폭포와 소를 만들어 자연 조화의 극치를 이루는 명소이다.

또한 840m가 넘는 명덕봉과 명도봉 사이 약 5km에 이르는 협곡으로 용소바위, 족두리바위, 대불바위 등 집체

만한 기암괴석이 첩첩이 자리 잡고 있어 매년 전국 피서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주천면은 운일암반일암 운영기간인 6월25일~8월15일(52일간)까지 피서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주차, 청소 등을 맡은 주천면 주민 30여명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을 지난 24일 실시했다.

또한 교육 후에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군의 청정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쓰레기 3NO운동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동참을 위한 캠페인을 주차장과 야영

장 주변에서 실시하고, 쓰레기봉투 사용 준수 등 피서객들이 지켜줘야 할 부분을 적극 계도하였다.

배완기 면장은 "운일암반일암의 청정자연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 3NO운동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운일암반일암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섬진강환경행정협 실무협의회 진안에서 개최

섬진강유역의 생태계 보전 및 수질 오염 예방 등을 위한 공동 대응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제50차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가 지난 24일 진안군에서 개최됐다.

진안산악초 타운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실무협의회는 회담기관인 진안군을 비롯한, 섬진강 유역 11개 시·군과 서부지방산림청 등 6개 특별기관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섬진강 유역 변경에 따른 하류지역 지원법 제정, 섬진강생태생물상 방류량 증대, 섬진강 유지수량 확대 및 모래톱,지장목 정비, 수생태계 변화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건의 등 섬진강 수계와 관련한 크고 작은 당면 안

건을 협의했다.

실무협의회 위원장인 이용선 환경산업과장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는 섬진강이라는 아름다운 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해 가는데 공동의식을 가지고 모인 만큼, 진안군 데미지에서 발원한 섬진강에 깊은 관심과 함께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1997년 구성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회장 이항로 군수)는 섬진강 수질보전 대책을 협의하고자 경남·전남·전북에 속하는 섬진강 유역 11개 지자체와 6개 특별기관으로 구성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자문위 열어

진안군은 지난 24일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자문위원단은 진안군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관계자, 보건교사, 어린이집원장, 학부모 대표 등 6명을 위촉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상반기동안 진행 된 27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과 아토피피부염 및 천식 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 실시 현황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 후 하반기에 진행되는 아토피피부염 캠프,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활성화 방안 및 아토피피부염 자녀를 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집중 논의 했다.

특히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의 메카인 진안군의 아토피피부염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아토피 프리 진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6·25전쟁 발발 제66주년 기념행사

무주군

은 지난 25일 무주읍 예제문화관 대강당에서 6·25전쟁 제6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안보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6·25 참전유공자회(지회장 박희명)와 안보단체협의회(회장 김동인) 회원들과 각 기관·사회단체장 등 5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계유공회의 위로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6·25참전유공자회 신운식(적상면), 정물군경유족회 이문수(8부남면), 윤종덕(무풍면) 씨가 투철한 국가관으로 군민 안보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무주군수 표창을 받는 등 총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정수 군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젊음을 희생하고 목숨을 담보했던 참전유공자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만끽하고, 희망찬 내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참전 세대의 마음을 어루만져 자긍심을 심어주고 전후 세대들과 국가·지역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을 위한 "무주군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1월부터 보훈수당을 인상해 지급해오고 있으며 관내 보훈단체 지원과 총흔담 주변 무궁화 식재, 훼손된 현충 시설을 보수하는 등의 활동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 한편, 현재 무주에는 9개 안보·보훈단체에 1,337명의 회원들이 등록돼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회계담당자 업무연찬회

장수군은 지난 23일 오후 3시 군청강부회의실에서 분청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회계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담당자 업무연찬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공무원들은 업무방식과 회계지식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장수군 전체의 회계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군청 재무과 최훈식 과장은 "이번 연찬을 통해 회계담당자들이 많은 고충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며 "장수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런 연찬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은 6·25전쟁 제66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장수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김윤섭 장수부군수를 비롯해 6.25참전 유공자와 보훈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6·25참전유공자회장수군지회(지회장 임순승)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기념식에 이어 2부 행사로 위로연과 장수한누리악단의 예술공연이 펼쳐졌다.

김윤섭 부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나라와 겨레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지

역발전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참전용사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군민의 안보의식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임순승 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6·25전쟁이 일어 난지가 어느덧 66주년이 되었다"며 "우리가 싸워 흘린 피와 땀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참전용사들이 앞장서서 다시는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안보태세를 갖추자"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경력단절 여성 일할 준비 '척척'

다음달 1일까지 완주 새일센터 프로그램 운영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계임)는 고용노동부 지원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새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신의 성격 이해 및 자신감 회복, 직업에 대한 흥미 유발, 관심있는 직업찾기, 자신의 취업목표와 취업계획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구직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취업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29시간의 과정을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한다.

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완주군 관내 여성은 누구나 구인과 구직연계, 취업상담과 알선 등 구직자 동행면접, 취업 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매월 운영할 계획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이나 취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나 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290-3880~5)에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승마장에서 체육지도사 자격검정 실시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장수승마장에서 2016 체육지도사 자격검정이 실시된다.

군에 따르면 본격적인 승마보급과 함께 승마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지도인력 양성을 위해 2016 체육지도사 자격검정이 장수승마장에서 실시, 내륙지역 응시자 4백50여명이 응시했다.

2016 체육지도사 자격검정은 내륙지역과 제주지역에서 각각 실시되며 내륙지역에서는 오는 28일부터 7월 1

까지 4일간 장수승마장에서 실시된다.

이번 자격검정은 승마와 관련된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생활체육지도사, 유소년체육지도사, 노인체육지도사, 장애인체육지도사, 노인체육지도사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장수승마장은 지난해 각종 승마대회를 성공리에 치러낸 시설"이라며 "올해 체육지도사 자격검정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대회유치와 다양한 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해 엘리트 승마와 대중 승마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적의 승마장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재경진안군민회 읍면대항 체육대회 성황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재경진안군민회(회장 서경식) 화합 체육대회가 지난 25일 서울 살곶이 체육공원에서 정세균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이항로 군수, 이한기 군의장을 비롯한 진안군민과 향우회원 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기념식에서는 지난 9일 국회의원으로서 선출된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안호영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진안출신 국회의원 3명 모두가 함께해 자리를 빛냈으며, 진안출신 국회의원 취임은 행사 자리에 모인 향우 및 군민

들뿐만 아니라 15만 모든 진안인에게 자긍심을 불어넣기에 충분했다.

2년마다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진안인 모두가 함께 화합하고 한마음으로 단결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며 체육경기와 신나는 노래로 고향 선·후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배구, 줄다리기, 400m계주 등 체육경기는 각 읍면별로 군민들과 향우들이 한 팀이 되어 경기 중에는 불꽃 튀는 경쟁을, 경기가 끝난 후에는 서로 웃으며 격려하는 등 흐뭇한 모습을 보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지방세 납부

전화 한 통화로 OK

완주군이 전화 한 통으로 세금을 조회하고 바로 납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군은 전화를 이용해 365일 24시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정차과대료, 환경개선부담금을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방법은 ARS 1588-2561로 전화해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납부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 체납액을 조회하면 된다.

조회된 세금은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계좌 안내 등 본인에게 맞는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과오납 환급 자동신청이나 과세정보 문자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 재정관리과 ☎ 063-290-2321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경찰, 모범운전자회 간담회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지난 24일 모범운전자회 회장 김강근 등 모범운전자회 임원 15여명 생활안전교통과장, 직원 외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반기 무주관내 행사 무주산골영화제, 그라운드 피너펠 등 각종 행사 시 모범 운전자회 교통관리 협조에 대한 감사에 뜻을 전하며, 관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주서와 더욱 돈독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 및 교통법규 지키기, TWC라이프 존을 켜기 등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강근 회장은 "경찰의 모범운전자에 대한 관심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 무주군에서 진행 될 반딧불 축제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썰, 상반기 치안협 정기회의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지난 24일 오전 경찰서 3층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장(장수군수 최용득)과 각 과장 및 치안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발생한 여성관련 범죄와 관련하여 여성과 노인대상 범죄에 대해 논의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회의는 신규 임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2016년 상반기 장수경찰 업무보고, 주요안건 상정 및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상정된 주요 안건으로는 여성안심귀가길 조성 및 관내 CCTV수리 및 추가 설치 논의, 공공화장실 비상벨 설치 및 가로등 조도 조정 등 여성안전과 관련한 토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노력에 뜻을 모았다. /장수=고판호 기자